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동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청지기훈련,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 잔치

주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13)

대상: 모든 성도

일시: 6월 25일(금) 저녁 7시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지난 제1차 청지기훈련에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시다(사 53:12). 이번 주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마 6:13)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마 6:13). 여느 훈련이나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청지기훈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잠 8:17). 또한 말씀 잔치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말씀 잔치,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제2차 청지기훈련 준비 기도회

일시: 오늘(13일) 찬양예배 후 (18:10~19:00)

장소: 갈릴리움

대상: 교구장 · 교구교역자 · 교구간사

지역장 · 남성구역장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바울의 윤리의 기본

(로마서 12:1~2)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교리라면 삶은 믿음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세대에 맞도록 빛어지는 것으로서, 소위 바울의 윤리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근거한 바울의 윤리의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사랑 안에 있는 삶'이다. 그러나 이 둘을 설명해 나갈 때 그는 먼저 사랑 안에 있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고한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삶이 전부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로 6:4).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윤리관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로 1:16).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곧 복음뿐이다. 복음으로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살전 2:12; 엡 4:1; 골 2:6).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바울은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가 체현하는 하

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로 9:16).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로 8:32). 하나님의 신성한 자비하심의 열매가 삶과 행동에 나타난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로 6:13,19).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지체가 모두 합하여 행할 임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산 제물'이라고 부른다. 산 제물은 살아있고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것이며, 아주 실존적이면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다.

우리는 새 세대에 속해 있다(로 12:2). 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악마의 세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에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갈 1:4; 롬 6:2). 사도 바울은 "마음을 세로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마음과 기억, 이론과 감정, 내·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은 새 세대로 통한다. 이 새로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고전 2:16).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로 6:4). 이것이 삶의 두 번째 원칙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 살려는 유혹이 항상 있다. 새 땅이 되기 위하여 목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전 5:7; 엡 5:7~8).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세계의 삶을 사는 것이다(빌 2:15). 마음을 세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판단력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 세대에 맞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MYSTERY OF THE RESURRECTION

(51)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52)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 (57)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58)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inthians 15:51~58)

The New Testament reveals many things previously unknown to humans about sin, God's holiness, the need of salvation by faith, and the crucified Savior. Overall, these unveiled mysteries encompass what I like to call the gospel. The gospel uncovers God's will for us in Christ.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which He lavished 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kind intention which He purposed in Him with a view to an administration suitable to the fullness of the times, that is, the summing up of all things in Christ, things in the heavens and things on the earth" (Eph. 1:7~10). The New Testament mentions all these things to become God's children, even the fact that God chose His children before creation.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Eph. 1:4). In today's Bible passage, Paul talks about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when Christ returns. What do you know about this great mystery?

Do you know that when Christ comes back, not all Christians will die? Paul tells us.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1 Cor. 15:51). Many believers had wondered if their death before the Lord comes would cause them to lose all hope of sharing in the glorious reign of Christ. Paul's answer is the reassuring affirmation that the dead will be raised and will share in the kingdom.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 (1 Thes. 4:13). When Jesus comes, the bodies of all Christians who died before His coming will wake-up and be the first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then the living Christians will follow.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1 Thes. 4:17). Until Christ returns, everyone is going to di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While we live on this earth, doctors, scientists, and patients constantly battle against death. We spend a great amount of resources taking care of the sick and discovering new cures. Researchers study and document our death rates and birth rates. Moses said. "As for the days of our life, they contain seventy years, or if due to strength, eighty years, yet their pride is but labor and sorrow; for soon it is gone and we fly away" (Ps. 90:10). Death is inevitable until Christ returns, but all living Christians at Christ's return will rapture without physical death! Isn't that exciting?

Do you know that all Christians will be different? Paul tells us.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But

when this perishable will have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will have put on immortality, then will come about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1~57). Right now we are mortal and perishable, but all Christians will change for their wonderful trip to heaven. It will happen quickly! All the decay and corruption involved with mortality will be gone from us. There is real power in the resurrection. Do you ever wonder what we will look like? The Bible say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1 Jn. 3:2). We are going to look like Jesus! This event is really going to happen when Christ comes back. Do you believe it? People spend an enormous amount of time trying to look good, but when Jesus comes no one can make themselves look that beautiful. Not only beautiful looking, but imperishable. This is some exciting stuff, but I haven't come across too many excited people. Paul believed in this great blessing. Do you really believe it?

Do you know that all Christians who know about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should then be diligent? Paul tells us.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8). A firm belief in the resurrection and solid hope for the future gives incentive for service in the present. The resurrection blessing should motivate all Christians to work for Jesus Christ. This is where the true value in life exists. Solomon in all his wisdom proclaimed.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Eccl. 1:2). All the work we do that is not related to the work of the Lord is futile. Every treasure that is stored here on this earth will perish. If you truly understand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then you should always be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You should constantly be storing your treasures in heaven. Thinking about your resurrection should excite you, and remind you of God's great love for you.

My dear friends, our great victory is through Jesus Christ. All the work we do for the Lord will be worth it when we see Jesus face to face. He may come today or tomorrow; only God knows the date. In the meantime, we need to stop messing around and neglecting our calling as God's children. Too many people are busy today with their own personal things. Christians are letting their work, family, and private times take precedence over God. The priority of worshipping God is no longer number one. It is a sad and shameful situation that needs correcting. Are you ready for the resurrection? Are you excited about being changed for eternity? Please make God number one in your life, and let Jesus be your Savior. There's only one condition for the resurrection, and that is you must be a Christian. 

부활의 신비

⁽⁵¹⁾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⁵²⁾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

⁽⁵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⁵⁸⁾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고린도전서 15:51~58)



김성원 목사

신약 성경은 죄,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에 의한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등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에 대해 밝히 보
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밝히진 일련의 신비 속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
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7-10). 신약 성
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
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
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오늘날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
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
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 잘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고전 15:51). 많은 신자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
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잃게 되
는 것은 아닐까 금세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왕국
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
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
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이 다시 살아나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
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
전 4:17).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의사와 과학자, 환자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사
투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한자를 돌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
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연구하고 자
료를 모읍니다. 모세는 말했다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
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황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
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
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
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
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
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
전 15:51~57). 지금의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요 썩어질 존재이지만 모든 그
리스도인은 천국으로의 황홀한 여행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의 자녀라 칭하며 허되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
일 3:2).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그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
충분한 사람은 별로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믿었습
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한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고전 15:58).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현재의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모든 그리스
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힘을 수 있는 자극
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
은 선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이 땅의
모든 보물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의 신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항상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천국에 여러
분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
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는 오실지 후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
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일, 가
족,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을 경배하는 것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로잡아
야 할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
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인생의 최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는
데 있어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메시아의 죽음 31

감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 이 산에는 감람나무(Olive tree)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예루살렘 보다 약 100m가 높은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신 곳이다. 이곳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물론이고 기도하시며 섬을 갖는 곳이기도 했다(막 11:11; 눅 21:37; 막 13:3).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 고난의 장소, 승천의 장소였으며 장차 재림의 장소가 될 것이다.

감람산은 구약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감람산으로 피신하였다(삼하 15:30). 솔로몬은 자신의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이곳에 산당을 만들어 우상(그모스신, 몰록신)을 섬겼다(왕상 11:7). 이후에 요시아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모두 없앴다(왕하 23:13~14).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와 영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다(겔 11:23).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감람산이 둘로 갈라질 것을 예언하였다(슌 14:4).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연관된다(행 1:9,11~12).

감람산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윗이 올버 뱀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회개하였고, 이후에 왕국을 회복하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피땀흘리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주도했던 아히도벨(맛세바의 할아버지, 삼하 11:3, 15:12, 23:34)이 목매어 자살한 것은 흡사 예수님을 배신한 뒤 목매어 자살

했던 가롯 유다와 같다(마 27:5).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특히 우리는 감람산에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는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으며, 희생제물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잡아야했다(민 19:2~3).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셨던 예수님을 상징한다(막 15:20).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1~13). 인간에게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고뇌가 대답을 찾기 위해 동반서주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나아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한걸음씩,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6. 9)

너희와 마귀

(요한복음 8:44~45)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분명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진리와 관계가 없었다. 종교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로 가득했으며(요 8:3~6), 진리를 믿지 않았다(요 8:12~13, 19).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요 8:21~24).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믿지 않았다(요 8:31~33, 36). 심지어 예수님께 귀신도 렸다고 말하였다(요 8:52).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요 8:44). 지금 가장 경건하고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마귀의 특성을 발견하셨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트린 ‘옛 뱀’이며 사탄이다(계 20:2). 또한 범죄한 천사들이다(벧후 2:4).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혹할 만큼 능력이 있다(마 4:1). 따라서 신자는 매순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벧전 5:8).

● 살인자이다

마귀는 살인자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요 8:44).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은 마귀다(창 3:3~4). 이로 인해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롬 6:23).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들은 속았다(창 3:4).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 그는 도둑이다

마귀는 도둑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의 일을 마귀는 하고 있다(요 10:10).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시도하였다(사 14:12~14). 그리고 마귀는 뜻다른 일을 하고자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림에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렐 8:11).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렐 8:12). “만일 내게 없더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마 4:9)는 속임수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렐 9:3).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호심탐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한 종교인들의 실상이었다.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5).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열정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만 있었을 뿐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요 8:59). 이 마귀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가? 우리의 능력을 내세울 때 요한복음 8장의 종교인들처럼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마 3:2, 4:17),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매순간 자신이 죄인(딤후 1:5)임을 인식하고 고백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15교구 1팀

“저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십자가가 힘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증보기도 하시며 흘리신 십자가의 눈물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이 땅에 뿌려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세워질길 기도했습니다.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맡깁니다. (박희희 집사)

이곳 선교지에 공공기관의 높은 송수신탑보다도 더 높은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날, 이곳 공안도 성경책 들고 교회 문 열고 들어가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김광일 집사)

팀 훈련 중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는 옛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서 팀원들에게 걸림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님께서 당대하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언어를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희 집사)

기도로 팀 훈련을 한 후 떠난 그곳의 첫날은 막막함과 미지에 대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숙소와 차량과 기사를 정하고, 식당을 정하여 사역을 준비하니,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운수 권사)

아!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의인 10명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군요. (하은숙 권사)

선교지를 향하는 그 시간까지 사탄은 수없이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경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대로 믿으며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허충수 권사)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루 하루 사역에 임했습니다. 성경님은 우리를 인도해가시는 곳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높은 산길에서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나 오는데, 아이들끼리 우리가 전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백원하 안수집사)

서툰 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언어의 미숙함으로 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로 강하고 당대하게 말할 때 그들이 울고 반기는 모습에서 아글 골짜기와 미마른 길과 같은 선교지이지만 조소씩 마음이 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승은 안수집사)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게 뿌렸을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류영호 권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4일(월) ~ 6월 23일(수)	19교구 2팀	김혁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7일(월) ~ 6월 15일(화)	11교구 2팀	김종규
6월 7일(월) ~ 6월 15일(화)	청년1부 2팀	허민선
6월 8일(화) ~ 6월 16일(수)	10교구 1팀	정문호
6월 9일(수) ~ 6월 17일(목)	8교구 2팀	최용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3일(목) ~ 6월 11일(금)	16교구 1팀	문연식



박현수
(교회직원, 음향실)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박현수 형제는 2년 전 직장이직을 두고 기도하던 중 아는 형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적적으로 중원교회에 입사했다. 원래 어떤 토목설계에서 취미였던 카메라촬영이 직업이 되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였다.

선교는 달랐다. 자신이 먼저 계획하기도 주님께 구하기도 않았는데, 운중계도 직원이라는 이유로 선교의 기회가 찾아왔다. 7개월 정도 선교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팀장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어와 영상물만 등을 차분이 따라갔습니다.” 막상 미얀마 배대원에서의 첫날, 노방전도가 겁났다. 정확히 두려웠다. 겉으로는 바야흐로 예수님 믿으셨음을 외치지만, 영혼사랑과 전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박현수 형제는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당대한 믿음을 달라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해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달라고 주님께 매달린다.

한적한 시골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b0대 노모와 아들로 보이는 20대 청년 두 명이 있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머니 눈이 너무 슬퍼보였어요. 신나름을 받아 말씀에 고동스러워 하셨던 저의 할머니님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버마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느덧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을 나설 생각도 하지 않고 찬양 3곡을 맘껏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했다. 집을 떠날 때 노모가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자신에게 복음 전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복음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결과였다.

첫날 사역 이후로는 자신감이 붙었다. 가는 곳마다 어린이와 어른, 남녀 구분없이 전도에 열을 올렸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뿌린 씨앗들이 익은 열매에 의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물을 주고 눈물로 읊을 달랐다. 그리고 온전히 열매 맺어줄 것을 주님께 간구했다. “미얀마 선교 사역기간 동안 밤과 들로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는 12 제자 중 제가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는 나 혼자 일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현수 형제는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후 영상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다. 일터와 학교가 없는 미얀마에 학교를 세우고, 영상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외침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미소가 연보였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어느 주일 새벽, 교회에 가기 위해 지친 몸으로 밀린 집 안일을 하고 있는 나의 뒷가에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갈한 심령에 힘을 얻고 ...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찬송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며 넘어지는 저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완악하고 강퍽한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오빠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모와 형제를 모두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어 새 삶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예수 믿게 해 주셨다고 늘 자랑하며, 감사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간 곳 없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나서 한 것처럼 묵에 힘주어 고만하였습니 다. 때로는 그들 앞에서 믿을 있는 척하던 가증들이 외식된 모습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버려둘 못하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 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내며, 사람으로 풀어야 할 때 풀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권경애(권사, 14교구))

나의 동반자

나의 함께 70여 년 동안을 함께 걸어오신 그 동반자는 누구였을까? 동반자와 나만이 아는 비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겠지? 과연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동반자는 누구였을까? 나의 등 뒤에 보이지 않도록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와 위로하시고,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감사 주시던 그분은 누구였을까? 나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신, 크신 분.

물고 웃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동반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눈을 때도 눈을 감아도, 쉬어도 걸어 가도, 저 하늘까지 걸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동반자는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동반자가 내 등 뒤에 계시기에 나는 울지 않는다. 오독이와 같은 신념으로 살아가리라.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태 안에서부터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 일생 다 가도록 따르면서 순종하여도 갚지 못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값을 갚이 없이라.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태 안에서 하신 약속을 7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 주신, 크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엄청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감격케 기도를 시키시고, 때를 맞춰 응답 주시는 나의 동반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나의 동반자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선포하며 알고 싶은 나의 심정 이이라.

(이형주(권사, 24교구))

2010년 여름 계절학교 교사강습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여름계절학교 시즌이 시작된다. 2010년 여름계절학교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 22:20)이다. 지난 주일, 계절학교 준비를 위한 교사강습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 부서의 교사들이 출동했다. 강습회는 제 1·2·3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강습회를 통해 말씀을 듣던 교사들은 교사의 직분, 교사의 말 일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며 참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였다. 주제해설과 교사교육이 끝나고 특별한 순서가 이어졌다. 3월에 발족되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교육개발소위원회'의 교육활동 프로그램 발표였다. 찬양과 율동을 배운 찬양발표를 시작으로 각 교육개발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성경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은 믿고 말씀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소위원회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좋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설명에 주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송미(유아부)



말씀과 강의가 아주 좋았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았는데 '설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개발소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들과 우리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많이 일치가 되어 좋습니다. 홍정호(교동부)

무언가를 기억하고 진행하기 쉽지는 않지만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계절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은 이 시기에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더욱 분주했을 것이다. 이제 '교육개발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더욱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교사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여름 계절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리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기대한다.

최자·한영미(가사)



스페셜 은혜타임, 청지기훈련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이 다가오면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
나요. 엄마는 미리 학교에 말을 하여 그날 야자(야간 자
율학습)를 빼고 청지기훈련에 참석을 하라는 것이지
요. 그럴 때는 '꼭 가야 하나?' 하며 조금은 불평을
해요. 하지만 지난 청지기훈련에 위임목사님의 말
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범죄자라는 것과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도하신다
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
라우요. 이번 청지기훈련 때는 엄마가 잔
소리하시기 전에 미리 야자도 빼고 기다
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보고 시
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
셨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들 물어?' 기대마니 댜지 별
써 은혜 받은 느낌이에요. 청
지기훈련이 은혜와 시간이
되도록 생각할 때마다 기
도하고 있어요.

강하은(고등부)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의 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늘 직시한다. 죄인의 속성 때문
에 죄인 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을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지난 제1차 청지
기훈련의 말씀은 깊은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청지기
훈련 때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마 6:13)라고 한
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
지기 위해 마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여락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번 청지기훈련
때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올리는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
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 주
실 것이라 기대한다. 세상의 어떤 말과 비유도 주님의 말씀과 비
교가 될 수 없는 것을 듣고 배우는 청지기훈련 시간, 시험을
이길 임을 알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가족 모
두, 말씀 받을 예비된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구
역에 배 시간에도 모여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의 발을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주은숙(집사, 24교구)

취재 · 한성하 기자

십자가의 길

기독교 =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
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린 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
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원죄로 하나님과 막혀
있던 죄의 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허물어
진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 아니, 어떤 짐치
럼 필요할 때마다 내놓았다가 또 다시 치워버린다. 예수 그
리스도의 지리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정
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모여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객
전도(主客顛倒)란 말이 딱 맞다. 우리 사회는 더욱 다원화
되고 있다.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
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라는 사실은 불변진리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66	추혜영	9	청년1부	이영문(1)	689	진희수	24	중등부	김예진(24)
667	송미하	17	청년2부	김진선(7)	690	신관수	12	대학부	박진수(16)
668	박유경	20	중등부	김예진(20)	691	이 정	7	청년1부	이연실(7)
669	유영옥	2	청년2부	김영애(24)	692	이동은	5	청년2부	한필순(5)
670	이수미	21	대학부	전사무엘(21)	693	이이진	5	영아부	한필순(5)
671	정단비	17	중등부	백정숙(17)	694	이소희	25	사랑부	박민호(24)
672	한은호	14	중등부	태필희(2)	695	김태미	1	청년1부	
673	김민경	11	청년1부		696	장혜은	10	청년1부	이정선(18)
674	이준서	4	유치부	김보옥(4)	697	고동은	10	초등2부	임창선(11)
675	서한림	4	청년2부	이정훈(9)	698	변건우	1	청년1부	
676	주영선	18	청년2부	추수환(18)	699	박선하	17	대학부	루태준(17)
677	김보람	16	청년2부	황연숙(16)	700	허관영	5	청년2부	이윤직(2)
678	고소초	3	대학부	박창시(3)	701	이세림	11	대학부	한성하(24)
679	정숙현	5	청년2부	김숙자(7)	702	김윤정	17	대학부	윤정희(17)
680	장혜영	1	청년2부	정호진(7)	703	최은미	20	청년1부	
681	홍정미	3	중등부	강석화(22)	704	소나영	6	청년2부	변다윤(6)
682	윤주현	13	중등부	현준복(20)	705	김혜익	5	대학부	김지훈(3)
683	박민경	11	중등부	박지은(11)	706	박보근	5	대학부	김지훈(3)
684	손수지	12	청년1부	김지은(5)	707	김현기	6	청년1부	이태경(6)
685	송미하	7	청년2부	이정희(7)	708	최재식	17	대학부	이신동(8)
686	최세진	7	청년1부	최종란(1)	709	김정민	20	대학부	박성수(20)
687	정영재	7	유아부	최종란(1)	710	최희락	18	청년1부	김승희(1)
688	정세진	7	청년1부	남정림(6)	711	정유진	19	대학부	이은미(1)

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별 세

- 1. 양복순 성도(김성호 성도의 모친·강원영 집사의 시모, 14교구 양계 우성1구역) / 5월 31일 별세, 6월 2일 장례
- 2. 조금복 집사(임영숙 권사의 남편·조재현 부도의 조손복 집사의 부친·이영남 집사의 장인, 17교구 신사구역) / 9월 별세, 11일 장례

결 혼

- 1. 한국인 군(한석열 목사·송재현 사모의 아들, 바나바와 박하나 영미(타국인 타로집사·정미희 타로집사의 딸, 7교구) / 19일(토) 13:00, 표교로교회 1층 본당

주일 4시 기도회

일시: 매주일 16:00 장소: 감리리층
대상: 신도위원회 2차회 주역: 6·10·14·18·22교구
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및 2차회주역

특별 교회주일 전도

일시: 여전도회 19일(토)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차회: 301호 2차회: 307호
3차회: 401호 4차회: 407호

CMTC 선교소련회(팀 단위로 참석요망)

일시: 19일(토) 오전 9:00~13:00 장소: 제교로교회 307호

선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교로교회 406호(4층) 406호(4층) 407호(4층) 408호(4층) 506호(5층) 507호(5층) 508호(5층) 509호(5층) 510호(5층) 511호(5층) 512호(5층)

6월 증현 기도의 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 1. 2010년 제2차 정기기회(6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는 성도기회로 기도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2.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3.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님들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동료로 사모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5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사를 베푸소서.
- 6. 25일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인물(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월(1·1·1) 전도하고 교회주인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1)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매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헌신의 재단(유지·통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증현목사와 한 헌제 추진양로원, 남일교회, 함양충원농촌 중년 사모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매 15:2)가 되게 하소서.
- 10.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장병(매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새벽기도회 (6/14~6/20)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호일	김정호/박관옥	장지현/백준호	장성원/한용택	황의현/정준	박지훈/이향란	김순창/장해구
설교 본문	메시아의 죽음	히 9:23-28	히 10:1-10	히 10:11-18	히 10:19-25	히 10:26-39	히 11:1-10

예배 답답 (6/16~6/2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6/16	수요 I	예능(창 5:18-24) 김성관 목사	김근영	이소규	최현수/유나/블리스/만도린/연주/의/원/영/신/기/원/호/나/원/애
	수요 II	베루신 성령(골 1:15-19) 황의현 목사	장성원	장진자	나의 믿음 약속 때(실로암 찬양대)
6/18	금요회	김성관 목사	박용원		예루살렘 찬양대 / 불꽃 양상보 / 배너 공방식
6/20	주일 I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김정호 목사	장지현	양기수	(예배 전 연주)
	주일 II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양태선 목사	이광원	최민석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바이올린 박진지(아연 오케스트라)
	주일 III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김성관 목사	이희석	석영익	성도여 다 함께 / 월월루아 제헌총장장단(지도 김성아)
	주일 IV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탁정현 목사	김백만	이상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 바이올린 박진지(아연 오케스트라)
	주일 V	부활의 신비(고전 15:51-58) 박준식 목사	김근영	류기범	왕 되신 주 / 별명 찬양장단: 김성관
	주일찬양	항상 기도하소서(마 18:1-8) 김성관 목사	이재현	장경옥	파이스 트리 / 별명 찬양대 / 20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전야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찬양	저녁 10:30	금요찬양본당 본당 앞 출발

2월 11일(토)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토) 10:15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등 부	오전 10:30	강리리층
고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구분	시간	장소
장년 1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방 부	오전 12:15	강리리층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제2교구) 오전 1:00(전체)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수) 오전 8:30~오후 6:00 (토) 오전 10:30~12:00 (일) 제1교구 6:30~제2교구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전 12:10	배나나 홀
국내외전신교부	오전 11:00	이런 홀
영유아초등독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충원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어린이집	주간교육	충원복지지



설 기 는 분 들

■ 위임목사 김성관

구분	이름	시간	장소
■ 부목사	장영기	오전 7:00	제1교육관 110호
	장영기	오전 9:00	제1교육관 201호
	장영기	오전 11:00	제1교육관 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01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2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3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4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5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6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7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8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0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1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2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3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4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5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6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7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8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9907호
	장영기	오전 12:30	제1교육관 10007호

■ 사모부지도 신병익 ■ 외신부지도 나가미

성악	오도현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희	나영실
구분	이계인	류진희	서병관	송진경	오숙영	홍기하
악기	이대성	윤인주	이복순A	이복순B	이주주	이향남
교회	아름	임태주	장혜구	전은희	정현일	최문실
장	정현일	홍순애	황순관			
악기	조준민	최경하	김진원			
구분	최경하	김진원				
악기	한정주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장						
악기						